

학번		성명	
학과		파견 국가	중국
참여프로그램	2025 하계 셀프디자인 제2외국어(영어 제외)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파견대학 (기관)	북경어언대학교(Beij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1. 출국 전 준비사항

중국 연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비자 발급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저는 여행자 보험 가입과 역량 설문조사 참여 후, 중국 대학 어학연수 승인 서류를 제출하여 비자(X2)를 발급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은 알리페이(Alipay)나 위챗페이(WeChat Pay)와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필수적이므로, 출국 전 반드시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법을 익혀가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또한, 저는 혼자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에 '중국 어학원'을 통해 입학 신청과 기숙사 배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북경어언대 입학신청, 현지에서 학교 등록 및 기숙사 배정,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2. 공항 도착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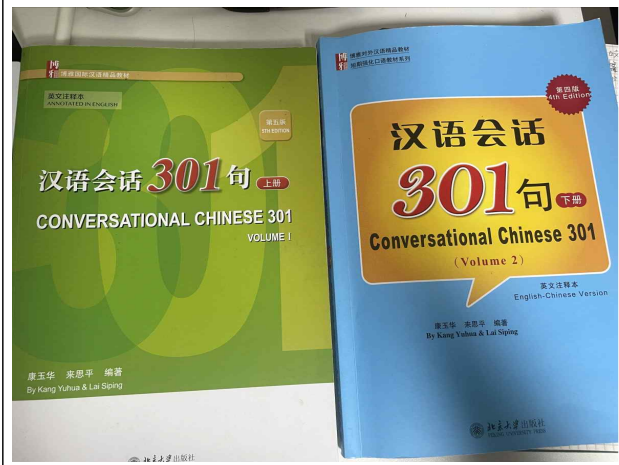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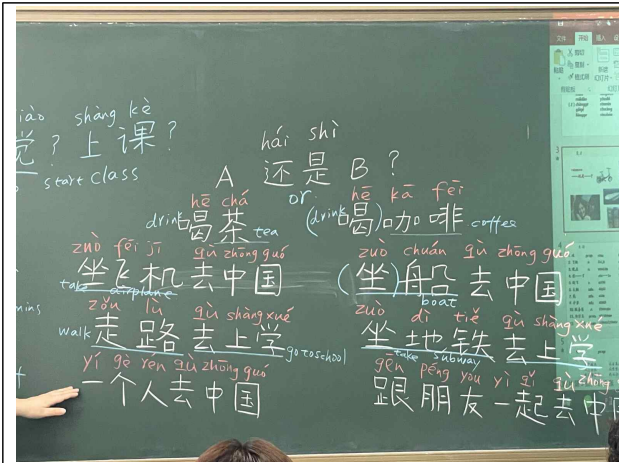
북경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에는 현지 유심을 구매하여 지도 및 통신 앱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택시나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택시 이용 시에는 목적지인 북경어언대학교의 중국어 주소를 미리 캡처해 두면 소통이 훨씬 원활합니다. 저는 입국 후 'DIDI' 어플을 이용해 택시를 불러 학교로 이동했고 도착 후 기숙사 배정과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3. 파견 대학(도시) 소개

북경어언대학교는 '작은 UN'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모여 학습하는 글로벌 교육의 장입니다. 학교가 위치한 북경은 중국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만리장성, 자금성, 이화원과 같은 유구한 역사 유적은 물론 베이징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은 현대적 즐길 거리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특히 학교 인근은 유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생활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4. 학교 생활

- 수업 및 수강신청: 도착 후 진행되는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 반이 배정되며, 저는 기초 단계인 A1 반에서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수업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정규 수업 외에도 만리장성 투어와 같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숙사 및 식당: 대부분의 학생이 17호동 기숙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수질을 고려하여 샤워기 필터를 꼭 구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교체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식사는 푸트코트 형식으로 운영되는 학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마라탕과 뷔페식 메뉴를 주로 이용했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중국 요리를 맛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5.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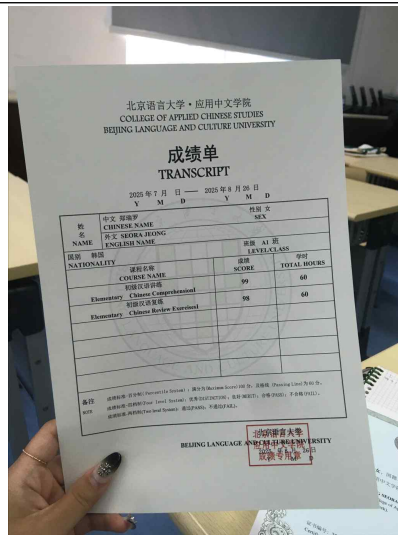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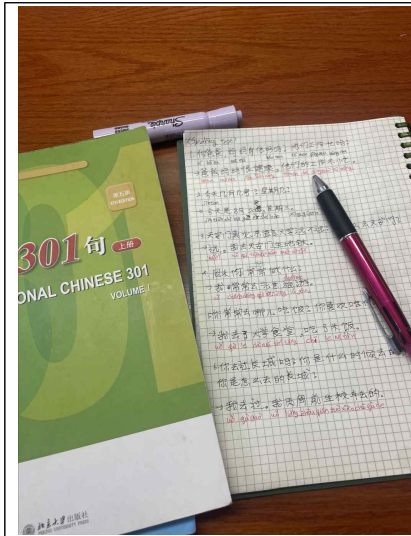
중국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도전이었기에 초기에는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 수업 시간 집중력을 유지하고, 당일 배운 단어와 표현을 꾸준히 복습하며 언어 학습의 즐거움을 체득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Chinese Comprehension I' 과목에서 99점, 'Chinese Review Exercises'에서 98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성공적으로 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단순히 점수를 넘어, 낯선 언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값진 경험이었습니

다. 더불어, 전 세계 다양한 국적의 학우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언어와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문제 해결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귀국 후에도 학습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재 HSK 4급 취득을 목표로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특제가 참여한 '셀프디자인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지정한 곳이 아닌,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와 교육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숙소부터 항공권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러한 자율적인 과정은 단순한 언어 연수를 넘어, 낯선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주도적인 태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아시아 국가 기준 150만 원의 장학금 혜택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오로지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대학 시절, 나만의 연수를 직접 설계해 보는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도전이 평생 잊지 못할 성장의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대학생살을 더욱 알차게 보내길 바랍니다.



6. 비용

사용 내역	지출	비고
학비	1,150,000원(5,900위안)	북경어언대 어학연수 6주
기숙사비	772,000원(3,960위안)	기숙사보증금 117,000원(600위안)
왕복항공료	263,200원	
VPN(allego)	20,360원	한국에서 미리 설치해 가는걸 추천
중국보험료	46,000원(235위안)	
중국유심	39,000원(200위안)	북경어언대 내 통신사 센터 이용
해외여행자보험	12,930원	
수속실비	284,496원	중국 어학원에 지불한 북경어언대 신청비, 수속실비 및 대행료
비자X2 발급비	46,000원	
왕복 교통비	109,700원	광주<->인천공항
내몽골투어	343,000원(1,760위안)	투어프로그램 비용
교통	41,500원(213위안)	6주 동안 사용한 대중교통비
베이징 유니버설 스튜디오	117,000원	

7. 기타 중요사항

반이 낮을 경우 선생님께서 수업을 영어로 하고 반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의 영어공부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 친구들은 한국의 K-POP과 드라마에 관심이 많아서 대화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문화나 기념품을 미리 준비해 간다면 전 세계 친구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베이징 내 관광지는 중국학교 학생증이나 여권이 있으면 최대 50%까지 할인받아서 입장 가능합니다. 표가 10~30위안 정도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관광하셔도 됩니다.

*가보면 좋은 관광지: 이화원, 원명원, 스차하이, 올림픽 거리, 북해공원, 산리툰, 왕푸징 거리, 천단공원, 798예술구, 만리장성, 자주원 공원, 중국유화미술관, 가오베이디안 운하운송역사문화관광지, 북경대학교, 베이징 유니버설 스튜디오, 중국미술관, 경산공원 등

학번		성명	
학과		파견 국가	
참여프로그램	2025-2 유학생 전공멘토링		

1. 프로그램 소개

대학 생활의 설렘과 함께 '나의 전공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품고 있을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경험한 '외국인 유학생 전공 멘토링' 활동을 소개해 드리 고자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이 수업에 잘 적응하고 학업 수행 능력 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학생 친구에게는 유학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멘토로 참여하는 여러분에게는 리더십과 글로벌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 합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기간: 2025.10.27.(월) ~ 11.21.(금) / 4주
- 운영방법: 주 2회 이상 활동하며, 대면활동을 권장하지만 상황에 따라 비대면도 가능
- 주요 활동: ①한국어 회화(자유주제), ②학업 및 교내생활 관련
- 활동종료 보고: 활동보고서(멘토), 활동소감문(멘토, 멘티), 만족도 조사(멘토, 멘티)
- 활동 혜택: 멘토 200,000원, 멘티 100,000원의 활동 장학금 지급

2. 활동내용

2025학년도 2학기 유학생 전공 멘토링은 총 4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공이 다른 경우 동 일 단과대학 학생끼리 매칭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멘티에 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활동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첫 대면 시 4주간의 운영 방향과 희망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 다.

특히 학교 홈페이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멘티를 위해 대면 시 직접 노트북을 활용하여 수강 신청, 성적 확인 등 필수적인 시스템 사용법을 실습 위주로 교육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졸업 이수 학점(130학점) 및 전공 필수 요건 안내, JUMP UP·백학·서석 장학금 등 교내 지원 제도 공유를 병 행하며 멘티가 안정적인 학업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공 및 교양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시아문화전당(ACC) 전시 관람, 글로벌 버디 지인과 2대 2 공동 멘토링을 통해 한국, 중국, 몽골 세 국가의 문화를 비교하고, 삼겹살 식사 체험 등을 통해 한국의 현대 예술과 식사 예절을 공유하였습니다. 더불어 대학 생활에 필수적인 존댓말 활용법을 교육하고 멘티가 관심을 가졌던 인근 수영센터의 정보를 탐색해 제공하는 등 학업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밀착형 멘토링을 수행하였습니다.



3. 성과(느낀점)

지난 2023년, 3개월간 몽골인 멘티와 한국의 문화 및 언어를 공유하며 쌓았던 소중한 경험은 저에게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주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이러한 뜻깊은 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다시 한번 멘토링에 참여하였으며, 이전의 경험을 자산 삼아 4주라는 짧은 시간 내에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멘티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위해 학사일정부터 각종 장학 제도, 비교과 프로그램, 'the조아'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였으며, 멘티가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함께 탐색하고 실행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외사 경찰'이라는 진로를 희망하며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 저에게 이번 활동은 단순한 멘토링을 넘어 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즐거운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이번 멘토링은 졸업 전 의미 있는 활동이었으며, 활동 종료 후에도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든든한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전공 지식을 나누며 리더십을 키우고 싶거나, 외국인 친구와 깊이 있게 교류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싶은 신입생 및 재학생 친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누군가의 학교 생활에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보람과 성취감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줄 것입니다.

4. 기타정보

유학생 전공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우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몇 가지 팁을 전 해드립니다. 우선 준비물로는 멘티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 그리고 학교의 시스템을 시각적으로 직접 보여주며 설명할 수 있는 노트북을 지참하시길 권장합니다. 유학생들에게는 텍스트 위주의 설명보다 직접 화면을 보며 시스템 사용법을 익히는 과정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멘토링의 비결은 멘티가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먼저 세심하게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를 함께 탐색하는 적극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너무 큰 부담을 갖기보다는, 또래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임한다면, 멘티의 적응을 돕는 보람은 물론 멘토 자신에게도 대학 생활 중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과 성장의 자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학번		성명	
학과		파견 국가	영국
참여프로그램	영어권 방문학생 프로그램 (2025-2학기 영국 울버햄튼대학 파견 방문학생) (2025년 9월 15일 ~ 2026년 1월 9일)		
파견대학 (기관)	영국 울버햄튼 대학교		

1. 출국 전 준비사항

1. 출국 전 OT

출국 전 OT는 총 2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OT는 4/28일 조선대 국제협력팀에서 조선대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한 OT였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장학금, 성적 처리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받고, 조선대/울버햄튼 방문학생 오픈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5/9일 유학원 주관으로 울버햄튼에 가는 모든 한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OT였습니다. 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울버햄튼 대학교에 관한 정보, 수업, 기숙사, 당부사항 등을 소개받았습니다.

2. 비자

비자 발급은 출국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저는 ETA(전자여행허가제)비자로 발급했습니다. 발급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gov.uk/>)에서 가능하며 비용은 10파운드입니다. 미국처럼 비자 면접은 보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만 제대로 입력하여 제출하면 승인 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영국으로 출국할 때, 유럽→영국으로 귀국할 때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ETA비자를 보여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따라서 비자 승인 메일을 핸드폰에 저장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서류 제출

입학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울버햄튼 대학교로 총 4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1)증명사진, 2)여권사본, 3)어학 성적표, 4)본교 영문 성적 증명서였고 안내받은 구글폼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 보험

방문학생의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하여 해외장기체류보험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돌아오는 시점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하도록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5. 항공권

항공권은 입학 허가서를 받고 예매했습니다. 저는 에미레이트 항공편을 예매하였는데 에미레이트는 학생 할인이 있습니다. 할인코드에 STUDENT를 입력하면 가격 할인과 수화물 10KG를 무료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체크인 시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이나 서류를 보여줘야 합니다.

6. 환전

저는 환전을 일절 하지 않고 출국하였습니다. 영국은 한국처럼 카드거래를 주로 하기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만 유럽은 유로가 필요했던 상황이 종종 있었어서 유로 환전은 추천드립니다.

7. 은행계좌

저는 카드 3개(신한SOL트래블, 트래블월렛, 농협트래블)를 발급받아 출국하였습니다. 분실 위험도 있으니 2-3개 정도 발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국의 경우 하나트래블카드가 제일 환율우대가 좋습니다. 만약 울버햄튼에서 현지 은행계좌가 필요할 경우 몬조은행을 추천드립니다. 발급이 제일 쉽습니다.

8. 유심

유심의 경우 첫 달은 Three 30GB을, 남은 3달은 현지에서 LEBARA 30GB을 사용했습니다. 둘 다 이 용에 문제는 없었으나 LEBARA가 한달에 5파운드로 이용할 수 있어 이 브랜드를 더 추천드립니다.

2. 공항 도착 후

1. 학교 도착 방법

버밍엄 공항에서 올버햄튼 기숙사로 가는 방법은 총 3가지(학교 픽업, 택시, 기차)이지만 학교 픽업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학교 픽업을 이용하였는데 입국장에 도착하면 올버햄튼 학생들의 안내로 단체버스를 타고 학교로 출발합니다. 또 기숙사 체크인부터 숙소 길 안내까지 다 도와주기 때문에 매우 편했습니다. 초행길이고 장시간 비행이기 때문에 택시나 기차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택시나 기차를 이용한 다른 학생들이 이동 과정이 힘들었다며 학교 픽업을 더 추천했습니다.

3. 파견 대학(도시) 소개

1. 파견 도시 특징

올버햄튼은 영국 잉글랜드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로, 주거 지역의 성격이 강해 치안이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체류하는 동안 소매치기 걱정도 없었고 핸드폰 스트랩을 착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전했습니다. 날씨의 경우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 많습니다. 시내에는 ASDA 등 다양한 마트와 각종 상점, 교통수단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일상생활에 편리합니다. 특히 대도시인 버밍엄까지 열차로 20분, 공항까지도 약 40분 소요되어 타지나 타국으로 여행하기도 편했습니다.

2. 학교 위치, 장점 및 특징

올버햄튼 대학교는 올버햄튼 도시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다국적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어 파견 학생에게도 상당히 열린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웰컴 파티, 동아리 활동, 쿠킹 클래스, 펍 등 다양한 교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올버햄튼 원더러스 FC의 홈구장이 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수업이 없는 날에는 영국의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4. 학교 생활

1. OT

도착한 첫 주에 올버햄튼 대학교 OT에 참여하였습니다. 교내 직원인 ADAM의 주도로 진행되어 캠퍼스 투어 이후 강의실에서 OT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학교 소개, 교내의 각종 부서 안내, 학교 필수 어플리케이션과 주요 연락망, 그리고 현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등이 안내됩니다.

2. 수업 및 수강신청

영국은 수업을 '모듈(Module)' 이라고 부르며 크게 Lecture와 Seminar로 나뉩니다. Lecture는 강의식 수업으로 한국과 비슷하게 교수님의 주도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반면 Seminar는 학생의 참여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에 교수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학생들 간 토의활동도 매주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또한 교환학생은 모듈 코드 앞자리 4 또는 5가 붙은 모듈만 수강할 수 있는데 대부분 4를 듣습니다. 5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강신청의 경우, 출국 전 유학원에서 모듈 가이드를 제공해줍니다. 이는 한국의 강의계획서와 유사하여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강신청은 올버햄튼 대학교에 도착 후, 학교 계정을 생성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수강정정을 하려면 교내 ask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모듈리더의 승인 메일을 보여줘야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기간은 3주정도로 넉넉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수업을 듣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강의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3. 기숙사(또는 숙소) 정보

올버햄튼 대학교 기숙사는 주방을 공유하고 개인 방을 사용하는 형태로,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을 플랫메이트(flatmate) 라고 부릅니다. 한 플랫당 개인 방은 약 5~6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에는 옷장, 책상, 침대, 개인 화장실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숙사에는 24시간 보안직원이 상주해있고 기숙사에 들어오려면 열쇠로 3-4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기에 안전합니다.

5. 성과

저는 방문학생을 가기 전까지 영어 회화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자기소개와 같은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했지만, 그 이상의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방문학생 기간 동안 영어로 수업을 듣고 발표를 하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점차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플랫메이트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여행지에서 외국인들과 스몰토크를 하며 실제 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쌓

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더 이상 번역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 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영국과 유럽 국가를 여행하며 좁았던 제 시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학생 이전에는 아시아권 국가만 방문해 보았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를 체감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첫 달에는 한국과 다른 모습에 문화충격을 많이 받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영국 생활과 유럽 여행을 통해 다양한 역사와 문화, 생활 방식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처음 접하는 음식이나 문화도 거부감 없이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대학교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4달 동안 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도 두려움 없이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6. 비용

교환학생 프로그램 비용(등록금, 기숙사비)	13,338,464원
조선대 등록금	1,502,000원
출국 전 생활용품 구입비(캐리어, 여분 생활용품 등)	890,000원
한국↔영국 왕복항공비	1,800,000원
생활비(식료품 등)	1,500,000원
여행비(영국포함 11개국 여행)	9,945,779원
비자 및 보험료	162,770원
총 비용	29,139,013원

7. 기타 중요사항

1. 국제 학생증(ISIC) 발급

영국이나 유럽국가는 학생할인을 상당히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관광지 입장료를 비롯해 의류,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공인된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국제 학생증(ISIC)이 이에 해당하고 교내에서 무료로 발급해 주는 기간도 있으므로 출국 전에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캠퍼스 확인

파견학생들은 주로 시티캠퍼스 기숙사에 입주하게 됩니다. 울버햄튼의 경우 총 3개의 캠퍼스(시티, 월솔, 텔포드)가 있는데 각 캠퍼스마다 소속된 단과대가 다르고, 거리가 멀어 이동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따라서 교환학생 신청 전, 본인의 전공이 어느 캠퍼스에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번		성명	
학과		파견 국가	X
참여프로그램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소개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은 조선대학교 재학생이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교환학생과 매칭되어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시스템과 타국에서의 생활이 모두 낯선 외국인 유학생에게 실질적인 학교 정보와 한국에서의 생활 전반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멘토로 참여하는 본교 학생 역시 이러한 특별한 교류 과정을 통해 다른 문화와 언어를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외국인 유학생과 교류하며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대학생활 속에서 국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 활동내용



↳ 글로벌 버디 활동을 하며 멘티와 가장 많이 함께한 시간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만남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함께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인데, 이러한 시간들은 서로를 알아가고 편안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사나 카페에서의 대화를 통해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각자의 문화와 일상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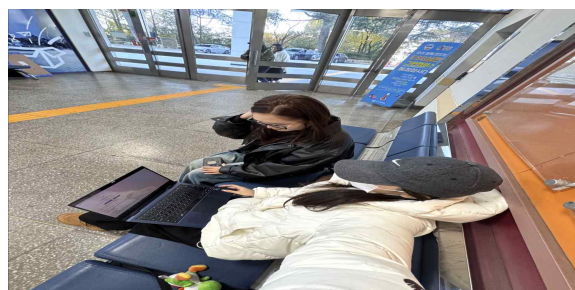
↳ 저는 같은 단과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장점을 살려, 시험 기간에는 본관 5층에 있는 스터디실을 함께 빌려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스터디실에서 함께 공부할 때에는 스터디실을 대여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안내하며, 멘티가 미처 알지 못했던 교내의 다양한 공부 공간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멘티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단순히 시험 공부를 함께 하는 것을 넘어, 학교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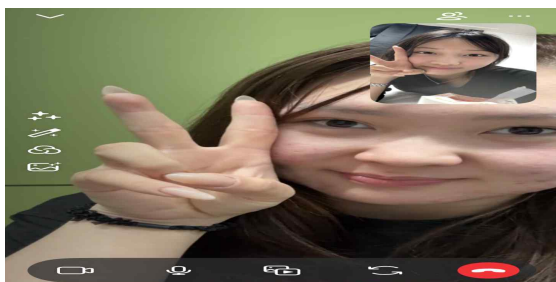
↳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운동장을 함께 산책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수업과 시험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 쉬어 가는 시간이자, 서로에게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학교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도 함께 참여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국제관 앞에서 했던 행사에 참여하고 찍었던 인생네컷인데, 이렇게 행사를 같이 참여하면서 멘티가 조선대학교의 분위기와 캠퍼스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생활 외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동행하여 필요한 절차를 함께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을 은행 방문 전 날부터 같이 도와주며, 혼자서는 어려웠을 부분을 함께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 더불어 멘티와 인스타그램도 팔로우를 하며 멘티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장학금 정보 등을 전달해 주고, 영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근황을 알려주며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버디 활동은 정해진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진 속에 담긴 순간들처럼 일상 속에서 멘티에게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들을 함께 채워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버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멘티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동시에, 나 역시도 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3. 성과(느낀점)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영어영문학과를 전공하며 영어를 꾸준히 배우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전공 공부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고 느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강의 시간에 배웠던 영어 표현들을 비록 작은 부분일지라도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해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이 개인적으로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멘티가 아직 한국어에 엄청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쉬운 표현을 사용해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바디 랭귀지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담이 줄었고, 이러한 실제 소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점차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나의 시야 확장]

멘티가 몽골 출신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몽골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식사를 하며 몽골의 술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한국의 국밥과 몽골 음식이 서로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더욱 흥미롭고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나라의 문화를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타문화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과 배려, 그리고 공감]

유학생의 멘토로 활동하며 매주 만남과 어떤 활동을 할 지를 스스로 계획하고, 멘티에게 필요한 정보를 먼저 생각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이 크게 향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어가 서툴렀던 멘티의 입장에서 언어, 문화, 환경의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상대가 느낄 수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나의 성장과 목표]

글로벌 버디 활동을 통해 외국인과의 교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의 가능성을 돌아보게 만든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로, 한국에서의 외국인과의 교류를 넘어 해외에 나가서 직접 소통해 보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의 새로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목표로 현재 어학 점수 취득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교환학생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조선대학교 국제 협력팀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4. 기타정보

위의 내용을 보면, 유학생의 멘토라고 했을 때 “외국어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담과 걱정을 먼저 떠올리는 학생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 보며 느낀 점은, 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벽한 언어 실력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진심 어린 태도라는 것입니다. 유학생과 잘 지내기 위해 반드시 능숙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내가 만난 유학생의 한국 생활이 인생에서 좋은 한 순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또한 프로그램에 지원했을 때부터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교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기를 읽고 더 많은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고, 누군가의 낯선 한국 생활을 따뜻한 기억으로 남겨 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학번		성명	
학과		파견 국가	
참여프로그램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소개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은 본교에 교환학생이나 유학생으로 온 외국인 학생들과 1:1로 매칭되어,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한국어교육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며 외국인 학습자와 직접 만나 실전 경험을 쌓고, 이 진로가 제 적성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이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스펙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 발을 디디기 전, 외국인 친구와의 진솔한 정서적 교류를 통해 저만의 수업 방향을 깊이 모색하고, 학습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고 싶은 더 큰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 활동내용

10주간의 글로벌 버디 활동은 저에게 언어, 문화, 정서적으로 다양한 차이를 지닌 외국인 친구와 깊이 교류할 소중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중국인 교환학생 샤오통과 8주간 1:1 멘토링을 진행한 후, 2주간은 다른 멘토·멘티와 함께 조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멘티와의 첫 만남에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지며 멘토링 규칙을 함께 정했습니다. 아울러 활동 초기에는 멘티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와 앱 사용법, 교내 셔틀버스 탑승 방법, 도서관 이용 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아직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멘티를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 번역 자료를 병행하여 설명하는 등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멘티 샤오통의 한국어 실력 향상과 학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복수전공으로 배우고 있는 한국어교육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멘티의 학습을 꾸준히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함께 연습하며 자연스럽게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문법 학습에 흥미를 보이기에, ‘-아/어서’와 ‘-(으)고’처럼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문법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집에 있었습니다.”와 “비가 오고 집에 있었습니다.”의 미묘한 차이를 실제 대화를 통해 비교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멘티가 “느낌이 달라요!”라고 말하며 문법을 이해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샤오통이 특히 어려워하던 부분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 준비였습니다. 문장 구조나 어휘가 낯설어 혼자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주차 활동에서 TOPIK 기출문제 중 ‘순서 배열형 문항’을 선별하여 함께 풀이했습니다. 먼저 멘티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게 한 뒤, 풀이 과정을 직접 설명하게 하여 사고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잘못된 부분은 함께 검토하며 오류를 고쳐주고, 문장 배열의 논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멘티가 점점 자신감을 얻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때 사용한 학습 자료는 제가 ‘한국어교육참관론’ 수업을 들으며 직접 만든 자료였습니다. 수업 당시에는 한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모의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 학습자의 수준이나 반응을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멘토링 활동을 통해 실제 교육 현장을 체험해 보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 맞춰 어휘를 조정하고, 설명 방식을 바꾸는 등 교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달았습니다. 또한 모의수업에서는 평가받는다는 부담감 때문에 제 역량을 100% 발휘하지 못했지만, 멘토링에서는 멘티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며 한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저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샤오통이 “오늘 활동 정말 재미있었어요. 쉽게 알려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보람과 함께 ‘내가 정말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제가 한국어 교육자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학업 지원을 넘어, 저는 멘티가 한국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이마트 앱을 활용한 장보기 체험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형마트 시스템이 생소했던 멘티는 평소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장을 보러 한 시간씩 택시를 타고 이동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멘티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부터 상품 검색, 장바구니 담기, 결제 방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멘티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을 배웠고, 한국의 스마트한 쇼핑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대학교 후문 근처 맛집을 함께 탐방하며 매운 떡볶이·마라로제 떡볶이·계란찜·치킨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던 샤오통이 "이건 괜찮아요! 맛있어요!"라고 웃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통해 한국의 식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었고, 샤오통도 한국 음식에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조별 활동에서는 한국의 여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노래방을 방문하였습니다. 멘티는 평소 좋아하던 K-POP 노래를 들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가사 중에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풀이해 주며 자연스럽게 어휘 학습으로 연결했습니다. 또 후문에 위치한 ‘알파 문구점’을 함께 방문하여 다양한 문구류와 미술용품을 구경했습니다. 멘티는 한국 문구 디자인이 섬세하고 귀엽다며 감탄했고, 저는 이를 계기로 한국의 디자인 문화와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멘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대면 활동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온라인 화상 통화로 활동을 진행하거나, 카카오톡으로 학습 자료를 공유하며 멘토링을 이어나갔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넘어,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친구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3. 성과(느낀점)

이번 글로벌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예상보다 훨씬 크고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0주간의 꾸준한 활동 결과로 우수 활동자로 선정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교육을 복수전공으로 공부하며 ‘과연 이 길이 나에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 답을 명확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학습자와의 실제 교류를 통해 한국어 교원의 역할이 단순히 언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적 중재자이자 공감 능력을 지닌 조력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론으로만 접하던 교육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보면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수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었고, 이는 저의 교육 철학을 한층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멘티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시스템, 생활 정보, 문화적 차이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문제 해결 능력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인관계 능력과 협력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시작했지만, 10주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친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마음으로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멘티 샤오통과의 행복한 기억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저의 대학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단순한 교내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준 뜻깊은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한국어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동시에 인간 중심의 따뜻한 교육을 실천하는 한국어교육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 곳곳에 전하는 교육자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4. 기타정보

저는 이 글로벌버디 프로그램을 한국어 교육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시야와 소중한 경험을 얻고 싶은 모든 재학생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같은 조에서 활동했던 다른 멘토의 경우, 일본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학생이 일본인 유학생 멘티와 매칭되어 함께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를 공유하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평소 관심을 가졌던 나라나 문화권의 학생과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내 비교과 활동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진정한 교류의 장이라고 확신합니다. 외국인 친구와 함께 웃고 배우며 성장한 경험은 교실 안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의 진로 확신뿐 아니라, 사람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많은 학생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특정 전공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외국인 유학생 전공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버디 프로그램이 자유로운 대화와 한국 생활 적응을 주로 돕는 것과 달리, 졸업 이수 요건이나 학사 정보 안내, 학습 성공 전략, 수강 과목 추천, 그리고 한국어/전공/교양 과제 지원 등 학업과 전공에 특화된 심층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전공 지식 외에도 국제적 감각과 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버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팁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언들이 여러분의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8주간의 1:1 멘토링과 2회의 조별 활동을 성실히 마치면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특히 우수 활동자로 선정되면 10만 원의 추가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꾸준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첫 만남에서 약속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주 만남 시간을 조율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1주차 첫 만남에서 활동 요일과 시간, 활동 범위 등을 함께 정리해두면 이후의 일정 조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은 유연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별 활동 가이드는 참고용일 뿐이므로, 멘티의 흥미나 필요에 따라 내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한국어 수업, TOPIK 시험 대비, 문화 체험 등을 적절히 병행하면 멘티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우수 활동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정성껏 작성해야 합니다. 활동 종료 후에는 멘토와 멘티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멘티가 한국어로 글을 쓰기 어려울 경우 멘티의 느낀 점을 대신 정리하고, 활동 사진을 풍부하게 첨부하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학번		성명	
학과		파견 국가	호주
참여프로그램	영어권 자매대학 장기 어학연수		
파견대학 (기관)	그리피스 대학교		

1. 출국 전 준비사항

저는 8월 말에 출국하였으며, 비자는 6월 말에 신청하여 여유 있게 승인 받았습니다. 보험은 카카오 장기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였고, 항공권은 7월 중순에 젯스타 항공을 통해 구매했습니다. 저가항공이었기 때문에 기내식과 수화물 무게를 추가하였으며, 총 항공권 비용은 약 38만 원이었습니다.

출국 전 준비물로는 호주가 한국과 계절이 반대인 것을 고려해 계절에 맞는 옷, 현지에서 병원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 기본적인 비상약도 함께 챙겼습니다. 또한 호주의 콘센트 모양이 한국과 달라 해외여행용 멀티탭을 준비하였고, 벌레가 많은 환경을 대비해 파리채도 가져갔습니다. 식기, 도시락 통, 텀블러 등 간단한 주방용품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제 및 환전을 위해 한국에서 미리 트래블월렛 카드를 신청해 두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환전하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전자기기: 만약을 대비한 세컨폰과 여분의 케이블을 챙기면 편리합니다.

현지 계좌를 만드고 싶으신 경우 필요한 여권, 비자 승인 서류는 미리 복사하거나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공항 도착 후

저는 브리즈번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 후 먼저 유심을 구매하였으며, 공항 내에 바로 보이는 옵티스(Optus)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이용한 요금제는 데이터 100GB 기준으로 월 약 4만 원이었고, 사용하면서 속도 면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며 데이터 용량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교통편의 경우, 홈스테이를 신청한 학생들은 호스트 패밀리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고, 홈스테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숙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저는 홈스테이를 신청하지 않아 약 5일간 호스텔에 머물렀으며, 공항에서 골드코스트 방향으로 가는 에어트레인을 이용해 헬렌스베일(Helensvale)역까지 이동한 뒤 트램으로 환승하였습니다. 이동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요금은 에어트레인이 25달러 이하, 트램은 50센트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 공항 유심은 시내보다 약간 비쌀 수 있지만, 도착 즉시 사용 가능해 초반 이동과 연락에 매우 편리합니다.

- 트램과 기차 이용 시 교통카드(Go Card)를 발급받으시면 편리합니다.

3. 파견 대학(도시) 소개

그리피스 대학교는 호주 동쪽 해안 사우스 이스트 퀸즐랜드(South East Queensland)에 위치한 공공 연구 중심 대학으로, 골드코스트와 브리즈번에 총 6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수는 약 45,000명 이상이며, 300개 이상의 다양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대학이 잘 알려져 있으며, 의학, 법학, MBA, 회계학, 호텔경영학, 항공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골드코스트와 브리즈번은 평균기온 15도~26도로 굉장히 온난한 편입니다. 인구수는 골드코스트(500,000명), 브리즈번(2,270,000명)로 지역민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유명한 관광지이자 휴양지인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는 끝없이 이어지는 해변과 서퍼들의 천국으로도 특히 유명합니다. 유명한 관광지로는 브리즈번의 Lone Pine Koala Sanctuary, South Bank 골드코스트의 Surfers Paradise, Pacific Fair Shopping Centre 등이 있습니다.

4. 학교 생활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주당 총 20시간의 정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는 없으며, 출국 전에 실시한 레벨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반 배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배정된 반의 난이도가 본인의 수준과 맞지 않는 경우, 문의하여 조정도 가능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낮은 반에 배정되어 상향 조정을 했고, 마지막 학기에는 수업 난이도가 높아 반을 한 단계 낮춰 수강하였습니다.

수업은 반마다 제공되는 클래스 노트북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개인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사용해 교재를 확인하면서 참여합니다. 교재는 스피킹, 라이팅, 리스닝, 리딩을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피킹 활동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 비교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라이팅은 아카데믹한 글쓰기를 배우며, 서론·본론·결론 구조와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익히고 매주 선생님의 피드백을 통해 실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수업 시간에 배운 영어를 활용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활동 중에는 버스나 트램으로는 이동하기 어렵고 차량으로만 갈 수 있는 산이나 바이런 베이 같은 장소도 포함되어 있어 꼭 참여해 보기를 추천하며, 골드코스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큐원(Q1)이나 전시 관람과 같은 액티비티도 입장료를 크게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 숙소

저는 홈스테이를 선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숙소를 구해 거주하였습니다. 홈스테이 비용이 부담되었고, 숙소가 랜덤으로 배정된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부담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변에는 홈스테이에 만족한 경우도 있었지만, 생활 방식이나 환경이 맞지 않아 중도에 숙소를 옮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출국 전인 7월부터 '플랫메이트(Flatmate)' 앱을 통해 숙소를 알아보았고, 호주 도착 후에는 약 5일간 호스텔에 머물며 미리 연락해 두었던 집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뒤 최종 거주지를 결정하였습니다.

5. 성과

이번 파견을 통해 얻은 성과는 크게 어학 능력의 향상과 시야의 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어학 측면에서, 출국 전에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크지 않았고 특히 말하기는 경험이 적어 부담과 불안이 컸습니다. 그러나 학교 수업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말하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어로 말할 때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고, 문장을 즉각적으로 구성하며 대화하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리스닝 실력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표현과 어휘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마트, 트램, 식당, 거리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영어에 노출되면서, 초반에는 거의 들리지 않던 말들이 점차 들리기 시작했고 상황에 맞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진로에 대한 시야와 가능성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호주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일을 찾고 살아가는 모습과,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며 직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전공이나 분야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직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현지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교육·복지 전공자들이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 지원 인력, 발달 지원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운영자 등 여러 역할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특수교사가 되는 것이 유일하고 가장 이상적인 진로라고 생각해 왔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특수교사가 아니더라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진로에 대한 시야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선택지가 다양해지자 직업의 가치 판단의 기준 또한 변화하게 되었고, 사회적 지위보다는 개인의 만족감과 가치관이 진로 선택에 있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파견을 통해 얻은 큰 변화이자 개인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6. 비용

	비용
프로그램	5,000,000원
항공료	380,000원
신체검사	190,000원
보험료	300,000원
숙박	주 250,000원(월 1,000,000원)
식비	월 400,000원
통신비	월 40,000원

7. 기타 중요사항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은, 학생 혜택과 생활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활비 부담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마트 이용 시, 콜스(Coles)는 Flybuys, 울월스(Woolworths)는 Woolworths Rewards 적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각각의 앱을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앱을 통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며, 주간 할인 상품과 회원 전용 특가 품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식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피스 대학교 학생 신분으로는 다양한 교내 스포츠 및 웰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가, 수영, 복싱 등의 클래스가 학생 할인 또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체력 관리와 동시에 다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프리 그로서리 마켓(Free Grocery Market) 이 열려 기본적인 식재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에는 학교에서 저녁 식사가 제공되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제학생이라면 Griffith Mates(그리피스 메이트)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국제학생 대상 이벤트와 액티비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일반적으로 비용이 높은 체험 활동도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입장료가 약 100달러인 드림월드(Dreamworld)를 20달러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영화 관람 시 Cinebuzz(시네버즈) 를 통해 학생 할인을 받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붙임1] 체험 후기 양식1: 국외 파견 프로그램 참가자

학번		성명	
학과		파견 국가	일본
참여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		
파견대학 (기관)	와세다 대학		

1. 출국 전 준비사항

학교에서 영문 재학증명서, 영문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았다.최근 6개월 이내의 서류인 것이 중요하다.

은행에서 영문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서울에 가서 유학 비자 신청하였다.

와세다 대학의 공부 계획, 동의서,등을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그리고 여권(Identification Page)부분과 JLPT 증명서를 스캔하고 제출하였다.

보험은 일본에서 도착해서 일본 보험 신청하기 전까지인 1주일로 설정해서 이에 맞춰서 신청하였다.

항공수속은 여행으로 간 것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알바를 한다고 한다면, 입국 심사할 때 말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서 알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은행 계좌는 한국에서 하나은행 계좌에 트래블로그 연동해서 하나머니 어플로 엔화를 환전하고 세븐일레븐에 가서 엔화를 인출하였다.

세븐일레븐에 가서 인출하는 것이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세븐일레븐에 가서 인출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3만엔정도 환전해서 갔던 것 같다.

인터넷으로 마이 와세다에 들어가서 예약한 집 주소를 적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행증 발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되기 때문이다. 학생증이 없으면, 도서관 출입, 책 반납 및 대출, 학생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2. 공항 도착 후

학교 도착 방법(도착공항명, 편리한 교통편, 요금 등)

대구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나리타 공항에서 내렸다. 게이세이 혼선이 가격적으로 싸기 때문에 게이세이선을 타고 도쿄로 갔다. 요금은 대략 1200엔정도 나왔던 것 같다.

기타 유용한 정보

유초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직접 가서 하는 편이 편하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바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설하고 카드가 올 때까지 2~3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구청에 가서 재류카드 신청하였더니 담당자분께서 건강보험도 신청하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재류카드 신청이 끝난 후에 건강보험 신청했다.

알바를 하고 싶다면 가급적 빨리 찾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학기간을 보고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불합격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 파견 대학(도시) 소개

학교 위치, 장점 및 특징

학교 위치는 신주쿠구에 있기 때문에 타가다노바바역이랑 가깝다. 또한, 신주쿠 역이랑도 가깝기 때문에 버스로 30분정도 소요된다. 학교 주위에 한국 음식점도 있으니까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면 가는 것이 좋지만, 본장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다. 학교가 넓고 건물이 전체적으로 웅장하고 예쁘다. 외국인 학생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와세다 대학교에 가게 되면 놀랄 것이다.

파견 도시 특징

도쿄에 있는 대학이다보니 생활할 때 편리하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면 아키하바라에 가서 구경할 수도 있다. 대도시답게 사람이 엄청 많다. 여러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여가생활할 때 재밌게 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불꽃 축제, 신사에서 행해지는 오마쓰리등등이 있다.

기타 유용한 정보

이렇게 오랜기간 유학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후회가 남지 않는 유학생생활을 보내서 만족한 상태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학교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일본어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알바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더욱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4. 학교 생활

수강신청, 수업

수강신청은 마이와세다에 들어가면 수강신청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1차, 2차, 3차가 나뉘어져있고, 1차에서 신청하면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합격/불합격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2차도 똑같지만, 1차에서 신청해서 가득찬 과목이 있다면 2차에서는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차에서 신청하자. 3차에서는 수업에 참석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될 때 정정해서 바꾸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 꽤나 많은 학생들이 정정하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CJL학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학부의 수업을 2개까지 밖에 신청해서 들을 수 밖에 없었다. 수업은 전부 대면 수업이었다. 과제가 매주 있으니까 주의하자. 또한, 출석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수업시작하는 시간에 꼭 맞춰서 출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숙사(또는 숙소) 정보(중요)

와세다 기숙사를 신청해서 합격하면 기숙사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나같은 경우에는 불합격하였기 때문에 주변 집을 열심히 찾았다. 학교까지 도보 15분거리에 있는 먼슬리맨션을 찾아서 매물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바로 신청하고 받아들여져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반년 유학이니까 기숙사 신청했는데 떨어졌다면 임대 주택보다 먼슬리맨션에서 지내는 편이 가격적으로 싸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침대, 전기레인지, 인덕션, 세탁기 등등이 구비되어있고, 따로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가면 된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랑 월세, 전기,수도비는 비슷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시키킹(보증금),레이킹(사례금),열쇠 교환비가 없는 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생각해보았을 때, 좀 더 싼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반년 유학인 경우에는 빌려주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기숙사 신청했는데 떨어졌다면 먼슬리맨션 사이트에서 매물을 찾아보고 계약하는 편이 비용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한다.



5. 성과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의 아르바이트 문화를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어 실력도 이전보다 향상되었다고 느꼈다. 또한 발표 중심의 수업이 많아 발표하는 상황에도 점차 익숙해지게 되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이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여러 문화를 접할 수 있었으며, 여러 나라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무척 기뻐다. 특히 스페인어권 유학생도 있어 학교에서 배운 스페인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여행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점들을 직접 생활해 보면서 일본인들의 일상과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마치 내가 일본인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이러한 경험은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향상된 일본어 능력을 활용하여 일본어 전공 과목을 수강하고, 나아가 일본 취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교에서 일본어로 수업을 듣고 일본어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일본어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 그리고 글쓰기 능력까지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었으며, 이는 나에게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된 프로그램이었다.

6. 비용

☞ 대략적인 비용 산출(기숙사, 생활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1달 기준

식비:5만엔 / 생활비: 2만엔 / 통신비:3200엔/ 건강보험료:1860엔/ 집세: 114000엔

교통비:5000엔

7. 기타 중요사항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서 어떤 점을 배울 것인지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언어는 자산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숙하더라도 일단 말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자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붙임 2] 체험 후기 양식2: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참가자

학번		성명	
학과		파견 국가	
참여프로그램			

1. 프로그램 소개

붉은 글씨는 작성 가이드 내용입니다.

삭제하시고 입력하세요.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조선대학교 신입생에게 본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세요.

2. 활동내용

 본인의 프로그램 참여 간 활동한 내역, 활동 사진 등 입력

3. 성과(느낀점)

 본인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성과 및 향후 계획 등

4. 기타정보

학번		성명	
학과		파견 국가	영국
참여프로그램	영국 울버햄튼 대학교 방문학생 프로그램		
파견대학 (기관)	Wolverhampton University		

1. 출국 전 준비사항

- 비자: ETA(영국은 ETA로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다.)
- 보험: 현대해상 유학생 보험(마이뱅크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마이뱅크를 추천한다.)
- 항공: 에어프랑스 이용(학생 할인으로 수화물을 2개까지 무료로 해준다. 카타르 항공도 똑같다.)
- 환전: 환전은 하지 않았다. 영국은 컨택리스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페트병을 다 쓰면 10p씩 주거나 마트 앞에 있는 ATM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전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 트래블 카드: 신한트래블로그, 하나비바카드, 트래블월렛 3개를 준비해갔는데 주로 신한트래블카드를 이용했다. 월렛은 환율이 10원 더 비싸기 때문에 VISA카드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했다.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트래블카드 1개와 트래블월렛 1개, 총 2개를 가져가는걸 추천한다.
- 국제 학생증(ISIC): 울버햄튼 대학교 학생증이 나오긴 하지만 그 학생증은 영국에서만 학생 할인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학생증을 따로 발급받는걸 추천한다. 여행할 때에도 ISIC 홈페이지에서 FLIXBUS같은 교통수단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발급받았으면 한다.
- 화장품이나 기초제품: 영국에서 사면 비싸기 때문에 여분의 화장품을 준비해가면 좋다.
- 캐리어: 32인치와 28인치 그리고 가방을 들고 갔는데 중간중간 여행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내캐리어를 하나 가져가는 걸 추천한다. 가져가지 않더라도 shein 같은 곳에서 3-4만원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짐이 될 것 같다면 가서 사고 버리는 걸 추천한다.
- 텀블러, 빨랫줄을 가져가면 좋다.

2. 공항 도착 후

- 도착공항: 버밍엄 공항
- 기숙사까지 픽업방법: 학교에서 제공하는 픽업차량을 유료로 이용했는데 비싸기 때문에 4명을 모아서 우버를 타거나, 버밍엄공항에서 울버햄튼까지는 기차로 30분 정도밖에 안걸리고 5파운드 정도밖에 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해보고 저렴하게 이용하는 걸 추천한다.

3. 파견 대학(도시) 소개

Wolverhampton 도시 자체는 크지만 핵심 인프라가 대학교 주변으로 몰려있어서 활동 반경이 넓은 편이 아니고, 도보로도 이동이 편한 편입니다. 치안은 좋은 편으로 울버햄튼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숙사에서 도보 5분정도로 대형마트 asda와 homebargain이 있고 헬스장(GD GYM)이 있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TOWN도 걸어서 20분이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위치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울버햄튼 외곽에는 대부분 공원들이 있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나 가구, 가정용품 판매점 등이 모여 있는 아울렛(TK Maxx)과 옆에 영화관이 있어 영화관을 좋아하시면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 캠퍼스는 각 지역별로 3개가 존재하는 큰 규모의 대학입니다.

4. 학교 생활

-수강신청을 할 때 캠퍼스에 대한 정보를 잘 확인하고 수강신청해야 합니다. Telford, Wolverhampton, Springfield 3개인데 대부분 Wolverhampton에서 진행하지만 공대계열은 Telford, 건축계열은 Springfield에서 진행하였습니다. Springfield같은 경우 멀지 않아 괜찮지만, Telford는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의 경우는 대부분 참여형 수업이고 기말고사를 치르거나 과제로 대체하는 수업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과제로 대체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듣습니다. 동양인이 많이 없지만 겁먹지 마시고 같이 수업에 참여하고 교수님과 이야기하며 조율하면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듣고 싶은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과이기 때문에 wildlife practical and fieldwork techniques라는 전공수업과 Film language and direction이라는 영화수업과 영어수업 총 60 credit을 수강하였는데 저랑 전공이 같으시다면 wildlife practical and fieldwork techniques 수업을 꼭 들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일주일동안 fieldtrip을 가는 수업인데 그 일주일의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행복했던, 정말 영국스러웠던 일주일이기 때문에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숙사는 2곳이 있는데 보통 한곳에 몰려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해도 되며 1인실이고 같은 플랫에 6명이 거주하며 주방을 6명에서 같이 쓰게 됩니다. 저는 한국인 6명과 함께 지냈는데 처음에는 다들 외국인이 있는 플랫으로 옮기고 싶어했지만 저는 한국인끼리 배정되었다면 그냥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친해진 친구들과 같이 저녁을 먹고 외국인 친구들은 같은 플랫에 살지 않더라도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플랫에 사는 친구들과 친해진 친구들은 많지 않았고 다들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나 이미 한국인들과 친한 외국인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기숙사는 한국인들끼리 쓰는게 편했습니다. RMT, RMS building은 오래된 건물이라 silver fish라는 벌레가 나옵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는 건물마다 기숙사비용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랜덤배정이기 때문에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리셉션에 가서 방교체 요청하시면 됩니다.

5. 성과

초반에는 영어문장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은 문장으로 말할 수 있고 잘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공수업도 1등으로 마무리 하게 되으며, 교환학생을 하는 약 5-6개월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6개월이 될 정도로 너무나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고민하는 부분에 두려움 등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쯤 이겨내고 꼭 한번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추억을 쌓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6. 비용

-기숙사,등록금: 약 1300만원
-생활비: 한달에 약 80만원정도(소도시 여행 포함, 개인마다 다름)
-교통비: 한달에 10만원정도
-유심: 쓰리심 한국에서 2개 준비, 이후 Rebara유심이용(레바라가 제일 싸기 때문에 추천한다.)- 5만원
-보험료: 약 20만원
-항공: 약 200만원(더 저렴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행: 약 800만원(영국소도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독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총 2,500만원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7. 기타 중요사항

영국 날씨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교환학생을 갔지만 생각보다 날씨는 매우 좋았고 안 좋은 날씨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가의 경우 높긴 하지만 기숙사 거주할 때는 보통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밥을 해 먹어서 이 경우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외식물가는 약 한국의 2배, 3배 생각하셔야 합니다. 겨울의 경우 춥고 라디에이터가 밤에만 틀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기장판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의 경우 버스, 기차 다 잘 되어있지만 연착이나 지연은 기본적인 부분이고 금액이 조금 비쌉니다. 기차의 경우 레일카드를 초반에 구매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고 영국 내에서 조금만 여행 다니셔도 충분히 이득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차가격은 항상 다르고 빨리 예매할수록 싸기 때문에 계획을 미리미리 짜시길 바랍니다. 은행은 Monzo계좌를 개설하면 헬스장 같은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해지고 헬스장의 경우 메일주소 하나당 한달에 10파운드이기 때문에 메일주소를 바꿔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붙임1] 체험 후기 양식1: 국외 파견 프로그램 참가자

학번	-----	성명	
학과		파견 국가	괌
참여프로그램	2025 하계 단기 어학연수		
파견대학 (기관)	UOG(UNIVERSITY OF GUAM)		

1.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전 어학연수 진행 측에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ETA전자여행허가증과 전자세관신고서에 대한 안내를 미리 다 해주셔서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 신청할 때는 미리 안내해주신 내용에 따라 꼼꼼히 작성만 잘 해주시면 되고 며칠내로 발급되긴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미리 준비 해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면 관계자분께서 친절히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편하게 이것저것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환전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학교 내의 신한은행에서 트래블 카드를 발급받아 편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화를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환전하여 쓰거나 결제 시 그대로 계좌에서 자동 환전 되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출국 전 꾸준히 환율 체크하면서 가장 낮을 때다 싶을 때 미리 넉넉히 환전 해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금은 어느정도 들고 가야 하나 이것도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는 식당이나 가게, 마트에서 전부 카드를 썼고 현금은 택시나 세탁기, 건조기 돌릴 때만 이용했기 때문에 많이는 들고가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휴대폰 이심, 유심, 로밍 중 선택사항이 많은데 저는 한달 로밍을 해서 출국했습니다. 로밍은 유심 빼서 교체할 필요 없이 신청해두면 도착했을 때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편리합니다. 번호도 한국에서 쓰시던 번호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도 넉넉해서 걱정 없이 사용 했었고 본인이 거는 전화는 비용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skt 통신사 이용하시는 분들은 괌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알아보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2. 공항 도착 후

공항 도착해서 비행기 내린 후 어떡하지 걱정 할 필요 없이 공항에 잘 안내되어 있고 저는 다른 승객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서 바로 짐 찾고 입국심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입국심사 대기하면서 이 또한 공항 내 직원이 안내해주시긴 하지만 미리 준비하신 세관신고서 인쇄물, ETA(비자) 관련 서류 인쇄물 꺼내 두시면 되고 입국심사에서 말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되신다면 어학연수관리 측에서 보내주신 연수대학 초대장, 입학 허가서를 인쇄하신 후 가져가셔서 심사관께 보여드리면 소통이 어려워도 쉽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을 마치고 공항 라운지로 나가시면 연수측 관리자분께서 알아보시고 친절히 안내해주시고 후 학생들과 함께 셔틀을 타고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3. 파견 대학(도시) 소개

제가 연수를 가게 된 대학은 꿈에 위치해 있는 UOG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학교가 위치해 있고 자연과 어우러져 있어 벤치에 가만히 앉아서 노래만 들어도 힐링 되는 곳이었습니다. 학교 내에는 도서관, 컴퓨터실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고 교내에 카페도 두개정도 있어서 카페에서 디저트나 식사를 사서 먹을 수도 있었고 학교측에서 제공해준 식사 후에 커피나 음료를 사서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점이 너무나 많았지만 특히 현지 학생분들이 친절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거 같습니다. 학교 내에서 다니다가 눈 마주치면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주시고, 모르는게 있어 여쭙보면 친절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같이 돔 라운지에서 탁구나 포켓볼을 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셔서 잊을 수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4. 학교 생활

학교 내 수업은 간단한 인터뷰 후 진행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회화에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 대답도 잘 못하고 많이 서툴었지만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테스트 후 반 배정을 받고 수업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로 인해 반이 크게 달라지는 거 같지는 않고 3~4개 학교가 같이 묶여져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 진행은 특정 주제를 정해

그것에 대해 조별로 토론하고 간단한 발표를 하는 회화 중심 형식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시는 주제는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재미있게 사람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국 내 수업 분위기랑 전혀 다르게 같이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간단히 정리하고 발표도 서로 응원해주고 호응해주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재미있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같은 클래스 친구들과 모두 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화 수업 외에 영상이나 영화를 시청하기도 했고 그림을 그리고도 했습니다. 또한 주별로 비치 데이, 야시장 투어 등과 같이 여러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수업 외에 현장학습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5. 성과

저는 토익 점수도 400점대로 그리 높지 않고 영어 실력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다양한 문화를 보고 경험해보고 싶다고 항상 생각해왔기 때문에 연수에 신청해서 좋은 기회로 꿈이라는 곳으로 연수를 갈 수 있었습니다. 연수 가기전에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너무 많았고 꿈에 도착한 직후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한달을 살 수 있을까 어떡하지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도 잠깐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며칠만에 금방 적응해서 같이 공부하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달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전보다 영어를 실력이 향상됨을 느꼈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보다 더 알아들을 수 있었고 현지 친구랑 같이 대화하며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확실히 실생활 안에서 배우다보니 빠르게 느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확실히 동기부여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연수가서 학교 내에서 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연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이미 합격한 후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물론 학교도 학교지만 방과후나 주말에 기숙사, 숙소에만 머물지 마시고 나가서 여러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여기저기 다녀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대화하며 그 곳에 녹아들어 어울리고 즐기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6. 비용

연수비용 : \$2,650(숙소포함- 내부기숙사 + 선셋크루즈)

(학교 시간 외에 아침 저녁 식사 제공해주는 식사옵션이 있었지만 저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신청하지 마시고 밖에 식당에서 사서 드시거나 마트에서 재료 사서 간단한 요리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또는 한국에서 핫반이나 컵라면 등 다양하게 간단한 식사 사서 가져가시는 것도 유용합니다.)

비행기 : 542,600원 (대한항공 기준이며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등 저가 항공 이용하시면 왕복 30만원 대 상품들도 많습니다.)

여행자 보험 : 29,600원

광주->인천공항 편도 버스 : 47,800원 (왕복으로 예매하지 마시고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해 우선 편도로만 예약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대폰 로밍 1달 : 59,000원

기본적인 비용은 이정도 들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비용은 학교에서 주신 장학금 200만원 내에서 사용했습니다. 식사나 쇼핑, 택시 포함 하셔도 200만원 내로는 넉넉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 기타 중요사항

여권이 없으신 분들 꼭 미리 발급해 두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서류들 공지 올라올 때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만 해두시면 출국 할 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연수 내에서는 부담 없이 학교 수업 잘 참여하시면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몇가지 알아 두시면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 꿈이 더운 나라긴 하지만 실내에는 무조건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법이 있어서 교실이나 기숙사 내부, 식당, 쇼핑몰, 버스 등 실내는 많이 춥습니다. 꼭 겉옷 챙기시고 될 수 있으면 담요 같은 것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또한 바다가 있다 보니 학교 내에서 비치데이, 선셋 크루즈 같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래시가드처럼 몸을 잘 보호해주는 수영복은 꼭 필요하고 수영 후 식사하실 때, 이동하실 때 역시 많이 춥기 때문에 수영 후 입을 마른 겉옷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이 것 때문에 감기 걸린 학생분들 많이 봤습니다.. 혹시라도 몸이 아플 경우 병원보다는 몸살이나 감기 등에 대비할 상비약도 어느정도 챙겨 가셔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크림은 한국에서 준비해 가셔도 좋지않은 현지에서 파는 바나나보트 spf100 짜리 추천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시는 곳 마다 다 팔고 있을 겁니다.) 한통 사서 한달 동안 쓰면 꽤 유용합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도 있다면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햇빛이 생각보다 강렬해서 유용하게 썼습니다. 비치타올도 쇼핑몰이나 시내에 가신다면 선크림 사실 때 abc마켓에서 기념품 겸 하나 사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하계에 연수에 가시게 된다면 우산 하나는 꼭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름쯤엔는 광은 우기이기 때문에 언제 비가 내릴지 모릅니다. 일기예보는 거의 소용없다고 보시면 되고 하늘이 밝다가도 비가오고 비가오다가도 갑자기 밝아지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방과후에 항상 외부로 나가는 셔틀을 운행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타고 이동하시거나 학생분들과 상의 후 같이 택시를 타시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것은 개인행동은 삼가해 주시고 위험하니까 늦은 밤 외출하지 마시고 통금시간 잘 지키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불가피하게 복귀 시간이 늦어진다면 관계자분께 사정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학번		성명	
학과		파견 국가	
참여프로그램	글로벌버디		

1. 프로그램 소개

조선대학교 글로벌버디 프로그램은 본교 재학생(멘토)과 외국인 유학생(멘티)이 한 팀이 되어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 프로그램입니다. 멘토가 되어 함께 학교 시설을 이용하며 방법을 알려주고 광주 탐방을 다니며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활동내용

· 러시아 친구 레라, 중국인 친구 리우베이, 한국 친구 민정과 함께 팀 형태로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1주차 : 본관 및 사회과학관 등 주요 건물 위치를 안내하고 통학버스 이용법과 시간표를 공유했습니다. 카페‘마루’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날씨(영하 40도의 러시아의 겨울)와 서로 언어로 인사하는 법을 배우며 첫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2주차 : 초대 후문 ‘고기오’에서 닭갈비를 먹으며 식사 예절을 공유하고 초대 장미거리 산책을 하며 양국의 물가 차이와 화폐 단위를 비교했습니다.

3주차 : 시험 기간을 맞아 zoom을 활용해 e-class, 더조아, 포털 시스템 및 성적 확인법 등 유학생이 놓치기 쉬운 학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였습니다.

4주차 : 국민아시아문화전당 전시 관람 및 그랜드 페스티벌 부스 체험을 통해 한국의 소품과 음식을 접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학생들이 많이 찍는 인생네컷을 찍고 겨울 간식인 붕어빵을 먹으며 사이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5주차 : 광주 월곡동 고려인마을을 방문하여 보르쉬와 말렌카 등 러시아 음식을 함께 먹고 러시아의 차 문화를 배웠습니다. 고려인 문화관 곁에 방문해 강제 이주 역사와 한민족의 끈기를 배우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주차 : 도서관 앱을 활용한 모바일 학생증 발급, 열람실 및 캐럴 예약, 무인 프린트기 사용법을 안내하여 시설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7주차 : 중앙도서관과 본관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해 재학/성적증명서를 뽑으며 한국의 편리한 행정 시스템을 공유했습니다.

8주차 : 외국인 등록증 수령 후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와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ATM 입출금 및 모바일 뱅킹 사용법을 교육하여 한국 생활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9주차 : 무등산 지산유원지에서 리프트와 모노레일을 타며 광주 전경을 감상했고 동명동 LP카페에서 음악 취향을 공유하며 빼빼로 데이 기념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3. 성과(느낀점)

우리에겐 익숙한 무인발급기나 ATM, 도서관 예약 시스템이 유학생에게는 큰 장벽임을 깨닫고 방법을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상대방 입장에서 설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증명서 발급에 일주일의 걸린다는 레라의 반응을 보고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러시아의 tea문화와 화폐단위를 배우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성실감과 진정성을 인정받아 우수활동보고서로 선정되어 상장과 상금을 받는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레라 출국 전 마지막으로 만나 편지와 선물을 교환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4. 향후 계획

고려인 마을 탐방에서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했던 경험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향후 해외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을 기획하여 전세계에 한국의 맛을 알리는 글로벌 식품 기획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기른 글로벌 소통 능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외 현지에서도 직접 일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학번		성명	
학과		파견 국가	-
참여프로그램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소개

내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이야. 우리 학교로 교환학생이나 입학 등으로 온 외국인 친구들과 1:1로 매칭되어 외국인 친구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버디로서 활동하게 돼. 총 8주간의 활동으로 멘토-멘티 활동 8회, 조별 활동 2회로 10회 정도 만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1:1 멘토·멘티 활동뿐만 아니라 조별 활동도 진행되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같은 멘토 친구를 만나서 서로의 경험이나 동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되게 든든했어. 외국인 친구와 소통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도 키울 수 있어. 활동을 성실히 마치면 이수 장학금과 우수활동으로 선발되면 우수 장학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2. 활동내용

우리 조는 제공된 활동일지에 적힌 활동 위주로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에 참여했어. 학교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활동했어. 학교 증명서 출력 기기 사용법이나 복사기 사용법, 교내 식당 이용 방법을 내가 직접 알려줬고,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같이 사용해 보면서 진행했어.

활동 중에 멘티가 한국에 왔는데도 컵라면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었어. 컵라면을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그동안 못 먹고 있었다고 하길래, 쿵스켓에 같이 가서 컵라면 고르는 것부터 물 붓는 방법,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나씩 알려줬어. 직접 해보면서 먹는 방식이 이해됐다고 해서 같이 웃으면서 컵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

프로그램 후반부에는 이미 기본적인 안내를 대부분 마친 상태라 더 이상 새롭게 알려줄 내용이 많지 않았어.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해진 활동보다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활동했어. 같이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고,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 또 조별활동으로 양림동 펭귄마을과 국립광주박물관에 함께 다녀오면서 학교 밖에서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어.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활동과 일상적인 교류를 함께 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어.





3. 성과(느낀점)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 왜냐면 나랑 멘티랑 엄청 성향이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 조별 활동 때 다른 멘토 친구랑 이야기해 보니까 서로 엄청 잘 맞고 친하게 지내서 활동 외에도 자주 밥 먹고 같이 놀고 서로 친구까지 소개해 줬다는 거야. 근데 나랑 내 멘티는 정말 만나서 활동하고 인증사진 찍고 정말 30분 안으로 해산했거든. 멘티한테 하고 싶은 걸 물어도 잘 모르겠다고만 답해서 너무 답답했어. 다른 멘티들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말한다던데 내 멘티는 한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 결국 그렇게 활동 대부분을 하다가 끝나기 3주 전쯤 터놓고 얘기했어. 네가 하고 싶은 걸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끌어 줄 수가 없는데 나도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제야 자기는 나랑 밥도 먹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네가 광주에서 할 거 뭐 있냐고 물어봐도 광주 재미없다고만 해서 자기도 말할 게 없었고 네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었다고. 서로 터놓고 얘기하니까 아차 싶으면서도 답이 보였어. 활동이 몇 번 안 남긴 했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 먹었어. 시간표가 아예 안 맞아서 공강 날 시간을 따로 빼서 밥도 같이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급 친해졌어. 이번 일을 통해 상대방이랑 부딪힐 때는 정말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빠르게 답을 찾아갈 수 있구나를 깨달았어. 알고 보면 우리 둘은 서로를 배려하다가 오해가 생겼던 거 같더라고. 나는 멘티가 소극적이길래 최소한의 활동만 하고 보내줘야겠다는 입장이었고, 멘티는 멘토가 바쁜 거 같으니까 그냥 따라야겠다는 입장이었던 거 같아. 서로에게 암묵적인 배려가 오히려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어. 이 경험 이후로는 오해가 생기기 전에 솔직하게 항상 말하려고 노력 중이야. 다른 조보다 모난 길을 지나왔지만, 마지막 성과발표회 때 멘티가 직접 만든 키링 선물과 간식, 손편지까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선물을 줘서 더 감동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해. 한때는 프로그램 참여를 후회했지만, 지금은 전혀 후회하지 않아. 외국인 친구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더 나은 방법을 깨달았으니까!

4. 기타정보